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7. 1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7월 13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위 성 백 위 원

김 근 익 위 원 대행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4차 임시 및 제1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4차 임시 및 제13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29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건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규제개선 요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내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외국 펀드에 중국 ETF를 포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1호 『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주)의 임원 ▶▶▶이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2호 『(주)하나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데이터 감독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하나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위원) 마이데이터사업이 형사 소송 절차 지연으로 심사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면서 사업자 진출이 많이 증가한 것 같음. 사업자가 증가하면 경쟁이 촉진되고 서비스가 다양화되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반면에 데이터 공유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함.

○ (보고자) 지금 금감원에서는 신청인들에 대한 허가를 심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감독이라든가 검사 부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현재 업권과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 중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추가로 말씀드리겠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음. 말씀하신 대로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할 때만 충

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임. 과거 2014년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형사벌 제재수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음. 그런 제도적인 규제 수준이라든지 규제의 시스템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 이번에 저희가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마련한 보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 같은 것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다가 사업자 편의대로 개인의 시스템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스크래핑(scraping)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한 정보에 대해서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PI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것임. 금감원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사업자의 보완체계라든지 이해상충 방지체계 그런 것들은 인가 심사할 당시에 검토를 하게 됨. 그리고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금지행위들이 있음. 이런 것들은 금융보안원을 통해서 사전에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심사 같은 것을 해서 서비스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음. 그래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부분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하게 계속 스크린하고 앞으로도 검사·감독의 주안점으로 두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 『키움증권(주) 등 4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데이터감독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키움증권(주) 등 4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보고자) 지난번 정례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고용효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신규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8개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원은 모두 814명으로 파악되었음. 금융권에서는 74명, 핀테크 등 비금융권에서는 740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었고, 금년 하반기 중에 금융권에서 96명, 비금융권에서 236명 등 총 33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위원) 좋은 소식인데, 혹시 예비인가 본인가 났다고 보도자료 낼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면 좋은 소식일 것 같음. 아까 28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가 난 것이 29개, 예비인가 신청한 것이 36개로 총 65개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만약 6개사가 되면 29개사에 6개사를 더해서 총 35개사가 되는데 어쨌든 한 60여개사가 있다고 할 때 사전적으로 적정한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은 좋은데, 더 추가가 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실제 영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명 가까이 고용한 것은 좋은데, 영업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회사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안 하면 뒤쳐지니 일단 인가나 받자.”고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신청한 것이 실제로 작동을 안 하고 소위 ‘장롱면허’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30개가 적정, 50개가 적정이라고 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심사를 할 때 이분들이 실제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용으로 받아놓은 것인지, 업계와 대화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심사하고 있음. 일단 영업가능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금융회사 같이 이미 본업을 튼실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마 이데이터업을 허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크게 어렵다거나 영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핀테크업체들임. 그래서 핀테크업체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빅테크업체라든가, 투자금을 충분히 받아 유치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 니다마는 규모가 워낙 작은 핀테크업체의 경우에는 과연 이 업체들이 허가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많음.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충분한 자금력이라든가, 물적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업체들이 지속가능하게 영업을 가능한지를 가장 우선적

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계획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허가요건들을 충분히 지속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불허가 결론을 내리고 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것이 장롱면허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빅테크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그렇고 향후 금융산업의 가장 큰 흐름이 데이터나 디지털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수립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됨.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핀테크업체들은 이 마이데이터업을 본업으로써 영위하려는 부분이 있고, 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업이라든가 카드업과 같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업을 받으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이 겸업하는 업으로써 큰 독립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업과의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하면 장롱면허에 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4호 『신한카드(주)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데이터보호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카드(주)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예비허가하고, 한국기술신용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5호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6월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6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의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동 안건은 서면진술을 했는데 진술로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는지?

○ (보고자) 서면진술은 2가지임. △△△와 □□□임. 먼저 △△△의 주장은 자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1심 확정판결에서 횡령 관련해서 이분이 구속됐고 유죄판결을 받았음. 본인이 다 서명하고 공범

으로 됐기 때문에, 선처해달라는 내용임. 두 번째 □□□의 경우에도 횡령 관련해서 2심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분의 주장 내용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아님.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7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의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의 ●●●임.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 책임을 통감함.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감사로 모셨음. 앞으로 윤리 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대표이사 처벌을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금감원에 하나 여쭙어 보겠음. 개선할 테니까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영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 대한 선처가 본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금액을 깎자는 것인지?
- (보고자) 오늘 금융위에서 대표이사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과징금 840만 원 부분임. 나머지는 이미 증선위 처분으로 확정된 사안으로 관련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음. 이 84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감경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더 이상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
- (위원) 결국 금액의 문제인 것이지, 본인의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8호 『이부진 및 이서현에 대한 삼성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부진, 이서현이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삼성생명

보험(주)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9호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6호 『(주)○○○○○○○○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지난번에 3개사가 나가고 이번에 1개사가 나가면 4개사가 나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아까 보고에서 8월26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열흘 후임. 언론에서 “이것 다 죽는 것 아니냐?”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보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지금 총 41개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재 진행하고 있거나 등록 반려될 4개를 제외하면 한 30개 업체는 8월26일 이전에는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융위 승인이 아닌 금감원이 심사하고 보고하는 형태이지 않은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다음 주에 금융위를 하고 휴회로 인해 한동안 금융위

정례회의가 없는데, 그런 것은 금감원에서 업무수행 하는데 부담이 되거나 지장이 있는 것은 없는지?

- (보고자) 다음 주에 어쨌든 3개 업체가 더 가능하고, 나머지 20몇 개 업체는 8월25일 금융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02분 폐회)